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51호 【루계 제2572호】

주체108(2019)년 12월 14일 토요일 음력 11월 18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로동당시대 문명창조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특색있는 인민봉사기지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준공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참석하시여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인민사랑에 의하여 세계적인 온천치료봉사기지, 체육문화휴식기지로 훌륭히 일떠선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준공식이 12월 7일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선 양덕온천문화휴양지는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는 종합적인 온천치료봉사기지, 다기능화된 복합체육문화휴식기지로서 조선로동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또 하나의 사랑의 선물이다.

실내온천장과 야외온천장, 스키장, 승마공원, 려관을 비롯하여 치료 및 료양구역들과 체육문화기지들, 편의봉사시설들, 소층, 다층살림집들 등 모든 구성요소의 실용성, 호상결합성, 조형예술화를 완벽하게 실현한 양덕온천문화휴양지가 웅장하게 건설됨으로써 사회주의문명창조의 새로운 경지가 개척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준공식장에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양덕의 산발들을 뒤흔들며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군인건설자들과 녀성근로자가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삼가 드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준공사를 하였다.

그는 양덕땅에 당에서 구상한대로 지대적특성과 자연환경에 정교하게 어울리는 온천문화휴양지가 특색있게 꾸려진것은 올해전투의 승리적결속을 알리며 온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는 의의깊은 사변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온천욕과 스키타기, 말타기를 함께 할수 있는 휴양지의 개발을 발기하시고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 미적감정과 세계적추세에 맞게 최고의 질적수준에서 하도록 건설 전 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양덕온천문화휴양지가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로 훌륭히 완공된것은 령도자와 인민이 굳게 뭉쳐 그 어떤 혹독한 도전도 뚫고나가는 주체조선의 일심단결의 위력에 대한 뚜렷한 증시이며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줄기찬 발전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세계앞에 다시한번 선언한 자력갱생로선의 거대한 승리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손저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의 인민사랑이 그대로 뜨거운 샘이 되여 문명의 바다, 행복의 별천지를 펼친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굽어보시며 예로부터 온천으로 유명한 양덕지구에 문화휴양지를 꾸려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고 그토록 마음써오신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념원을 풀어드리게 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실내온천장에서 온천욕을 하는 근로자들의 모습을 기쁨속에 바라보시면서 자식들에게 한가지라도 더 안겨주고싶어하는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봉사조직을 더 잘해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스키종합봉사건물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재봉사매대앞에서 스키기재들을 보아주시면서 온천치료와 함께 스키봉사도 받을수 있어 인민들이 무척 좋아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몸소 삭도를 타시고 스키장정점에도 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가파로운 주로를 나는듯이 지쳐내리는 청년들의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면서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어 승마공원과 조마장에서 말을 타고있는 청소년학생들의 모습을 보아주시고 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뜻깊은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사랑의 뜨거운 자욱우에 솟아오른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서는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향유하며 터치는 복받은 인민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질것이며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탁월한 령도따라 공화국은 세계가 우러러보는 사회주의강대국으로 용용장엄하게 솟구쳐오를것이다.

본사기자

고귀한 유산—푸른 하늘

태양의 따사로움은 눈보라치는 겨울에 더 잘 느낀다고 했다.

하많은 사연과 뜨거운 격정을 불러일으키는 12월의 언덕에서 적대세력들의 폭제를 일진광풍의 기상으로 휘여잡으며 또 한 차례의 천지개벽을 단숨에 안아온 2019년의 숨결을 더듬어볼수록 공화국인민들의 가슴속에 고패치는 격랑은 도무지 잦을줄 모른다.

뼈를 깎는, 살을 에이는 시련의 장설들을 헤치시며 자신의 마음속에 꽉 차있는 슬하의 인민들을 품에 안으시고 심장의 열을 다해 지켜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오늘의 희한한 황홀경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너무도 크기에…

※ ※

《나도 그 길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흐르는 세월속에 모든것은 잊혀진다지만 피눈물의 12월 경애하는 원수님 너무도 맺히고 맺힌 응어리를 풀 길 없으시여 터놓으시던 심중의 이 사연은 왜서 해가 바뀔수록 사람들의 가슴에 더더욱 아프게 파고드는것인가.

잠시라도 자신을 생각하셨으면 이런 절통한 아픔 없었으련만, 가시면 안될 길인줄 만류하는 의사들보다 더 잘 알고계셨건만 위중한 병을 사정없이 묻으시고 인민에게 바쳐오신 헌신에 끝없는 부족과 안타까움을 느끼시며 마지막피와 숨결마저 그 인민의 가슴에 깡그리 부어주신 어버이의 사랑과 헌신의 길.

정녕 그 누구도 막을수 없는 길이였다. 떵떵 얼어터지는 추위가 길을 막고 온 나라 인민이 다 막아나섰다 해도 아마 그이께서 인민 찾아가시는 그 길, 위대한 생의 마지막길을 멈추어세우지 못하였을것이다. 그 걸음은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생의 전부를 내대신 걸음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신을 바쳐 걸으신 길이 그때뿐이였던가.

말로 번지기조차 가슴쓰라린 추억을 오성산을 찾았던 주조무관들의 말을 통해 되새겨본다.

《**김정일**령도자의 오성산시찰소식에 접하고 그곳에 갔던 우리는 152굽이를 오르는 길이 너무나도 가파롭고 아슬아슬해서 머리칼을 곤두세우고 차안에서 밖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눈을 꾹 감고 고지까지 올랐다. 이런 위험천만한 곳에 한 나라의 최고사령관이 그것도 한해에도 두번이나 오르셨다기에 위력한 신형무기나 대공격집단이 진을 치고있을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이 나라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병사들뿐이였다. 조선인민군이 왜 그토록 강한가를 더 잘 알게 되였다.》

지금은 굽이마다 리정표가 세워지고 안전뚝도 만들어져있지만 장군님께서 오르셨던 비내리는 8월의 그 령길은 어떠하였는가.

한치만 잘못 밟으면 내려다보기조차 소스라치는 아찔한 천길벼랑, 련일 내린 소낙비로 하여 흙이 다 씻겨내리고 돌만 남아있는 돌밭길, 숨막히는 저기압, 거기에 굽이는 왜 그렇게 많고 길은 왜 그리도 가파로운지…

당시 공화국의 앞길에 드리운 시련의 축소판인듯싶은 오성산의 칼벼랑길을 그이께서 타신 야전차는 몸부림치듯 차체를 떨며 한치한치 톺아올랐다.

고지정점에로 치달아오르던 야전차가 어느 한 순간에 헛바퀴질하며 미끄러져내리는 순간 차에서 내리시여 몸소 차체에 어깨를 들이미신 장군님.

차가 용을 쓸 때마다 그이의 옷자락엔 흙탕물이 사정없이 휘뿌려졌건만 그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더욱 힘을 주어 차를 미시였으니 그 어느 나라 군력사에 낭떠러지로 밀려나는 차를 어깨로 떠밀며 병사들을 찾아간 최고사령관이 있어보았던가. 력사의 어느 명장도 걸을수 없었던 그 길은 장군님 넘고 헤치신 선군길의 한토막에 불과했다.

이 나라 인민이라면 그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면서 가슴이 막 졸아들고 등골이 서늘해지군 하여 다시 상상하기조차 저어되는 초도의 풍랑길.

한걸음만 늦추면 따스한 해빛이 파도를 감싸안는 좋은 날에 택하실수도 있으련만 굳이 하늘땅이 맞붙어 돌아가는듯 집채같은 파도가 사납게 일어번지던 험한 날에 항행길에 오르셨던가.

조국수호의 길은 맑은 날 좋은 때를 가려 걷는 길이 아니였기에, 자신의 신들메를 조금이라도 늦추면 조국과 인민을 지켜낼수 없었기에 그 위험천만한 바다길에 주저없이 나서신것이다.

어느 한때, 어느 한 대목의 이야기가 아니다. 순간순간이 그렇게 흘러갔다. 얼어든 몸 녹일새 없이 조국수호의 장정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던 겨울날들, 눈보라를 헤고 달리고달리느라 온통 얼음으로 덮여 문조차 열수 없었던 《움직이는 눈무지》일화, 눈물없이는 더듬을수 없는 무수한 일화들은 녹지 않는 얼음덩이마냥 오늘도 이 나라 인민의 가슴에 맺히고 또 맺혀있다.

걸음걸음 사선의 고비를 넘어온 공화국의 려정이지만 지난 세기 마지막년대처럼 어려운 시련의 시기는 일찌기 없었다.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붕괴로 익측없는 전선으로 된 이 나라에 제국주의무리들은 이리떼처럼 달려들고 전기문제, 쌀문제를 비롯하여 이 땅의 크고작은 모든 문제가 위대한 장군님의 두어깨에 무겁게 실리였다. 인민들이 겪는 가슴아픈 정상에 대한 보고자료가 매일같이 그이의 집무탁우에 놓이였고 어디서 무엇이 풀렸다는 보고보다도 무엇이 걸렸다는 보고가 더 많이 그이께로 올라왔다. 하거늘 힘겨운 생활난을 겪는 인민들의 눈물겨운 정상을 목격하시는 그이의 마음속 괴로움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었다. 그래서 한공기의 죽마저도 드실수 없어 수저를 놓으신적 그 몇번인지 모른다.

그이도 인간이시였다. 너무도 마음이 괴로우시여 인민들을 위로하고싶으셨고 눈앞에 닥쳐온 생활문제부터 풀고싶으시였다. 그러나 총대보다 다른것을 먼저 생각하면 민족의 생존이 끝장나고 그것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것이기에, 이런 값비싼 희생을 바쳐야만이 다음세대가 만복을 누릴수 있기에 괴로움을 달래시며, 마음을 다잡으시고 숨죽은 공장들과 농촌으로가 아니라 전선길, 전선길로 끊임없이 달리셨다. 조국과 인민을 자신처럼, 아니 자신보다 몇갑절 더 귀중히 여기시며 그 운명에 자신의 운명을 거시였다. 험준한 산악이나 난파도도, 폭열과 폭우도, 모진 고난, 참기 어려운 아픔도 그이의 전선길을 막을수도 멈춰세울수도 없었으니 그렇게 수호하신 조국이였다. 그렇게 지켜주신 인민이였다.

준엄한 전선길의 굽이굽이는 이렇듯 사선의 고비의 련속이였다.

그러나 그보다 더 넘기 힘들었던 마음의 고개는 또 얼마였던가.

민족의 장래가 달려있는 참으로 중대한 선택을 하셔야 했던 장군님. 국방력강화를 위한 중대문건에 수표하시며 인민들이 고생을 겪는데 이런 결단을 내리자니 가슴이 아프다고, 먼 후날 우리가 잘살게 될 때에는 그들이 모든것을 리해할것이라고 그리도 절절히 교시하시던 장군님이시였다.

한줌의 쌀, 한푼의 자금이 천금같이 귀하던 시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선택이였으면, 얼마나 마음속 고충이 크시였으면 후날 인민들이 장군님의 그 심정을 잘 알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눈굽을 뜨겁게 적시셨으랴.

남모르는 고뇌와 생사결단의 피와 땀으로 주저없이, 줄기차게 열어가신 국방력강화의 간고한 초행길우에서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운명을 억년담보할수 있는 강위력한 보검이 마련되였다.

북조선의 실상은 생존자체가 기적이고 발전은 절대불가능하다던 적대세력들은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일떠나 힘차게 전진해가는 공화국의 억센 모습을 보고 기겁하지 않을수 없었다.

숨막히는 강압과 봉쇄,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수 없는 속에서 《유일초대국》의 압력에 초강경고압자세로 맞서나가며 복잡다단한 행성을 주도하시는 가장 위대한 배짱가, 가장 담대한 강철의 령장을 모시여 조선은 세계의 한복판에 백두산처럼 우뚝 솟아올랐다.

《조선은 진짜 사나이이다.》, 《우리도 조선처럼 해야 한다.》, 《세계의 대국들이 조선의 비위를 맞추며 접근하는 시대가 펼쳐졌다.》

승자는 언제나 조선이였다. 세계는 진짜 장군을 보았다. 그 간고하던 나날들이 얼마나 뇌리에 쩌릿하게 새겨지셨으면 언제인가 병사들의 노래를 들으시던 장군님께서 그처럼 뜨거운 교시를 하셨겠는가.

지금까지 노래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전문예술단체의 가수들이 부르는것도 들어보고 여러 공연들에서도 많이 들어보았지만 병사들이 부를 때가 실지로 감동이 컸습니다. 언제인가는 한 병사가 이 노래를 부르는것을 보며 너무 눈물이 나서 마음을 진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병사들앞에서 눈물을 보일수 없어 우정손수건으로 안경을 닦기까지 하였습니다. …

그것은 단순한 헌신이 아니였다. 희생이였다. 그 희생의 대가로 공화국의 인민들은 언제 한번 조국의 하늘가에 전쟁의 불구름이 밀려온다고 걱정해본적 없었고 자기의 아늑한 집에 포탄이 날아들리라고 상상해본적은 더우기 없었다.

그 천만고생으로 하여 해일처럼 밀려들던 핵참화의 불구름은 가셔지고 민족의 머리우에 영원히 맑고 푸른 하늘, 존엄의 하늘, 희망의 하늘이 창창히 열린것이다.

한 시대의 위대한 인물은 세계를 해석하고 그 길을 밝히는것으로 그치는것이 아니라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시대를 현실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다.

《**김정일**령도자는 왜 세계의 존경을 받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 외국의 언론은 그것은 크지 않은 조선을 가장 강대한 군사동맹의 위협과 장기간의 제재속에서도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었기때문이라고, 이런 강한 지도자는 적들도 존중할수밖에 없다고 썼다.

이렇듯 포성없는 전쟁속에서 공화국의 운명이 수호되는 전설같은 기적이 창조되였으니 영원한 평화의 하늘, 이것은 이 나라 후손들을 위해 남기신 장군님의 고귀한 유산이다. 공화국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짧은 기간에 그이께서는 자신의 결단과 힘으로 한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좌우하는 그런 위대한 유산을 남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수호의 길에 새겨진 하많은 이야기를 사람들은 오늘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며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

조선을 세계의 군사강국으로 더 높이 떠오르게 한 주체병기시험의 련발성공!

이 땅에서 성공적인 폭음들이 다발련속적으로 울려퍼질 때마다 세계는 왜 그리도 떠들썩하며 특대소식으로 앞을 다투어 전하는것인가.

모든것이 새롭고 독창적인것도 경이적이지만 크지 않은 나라가 세계적인 중압을 단독으로 이겨내기만 한것이 아니라 크고 억센 힘을 뻗치며 세계정치흐름에 그렇듯 커다란 영향을 미친 례는 일찌기 없었던것이다.

폭제의 불구름을 갈가리 찢어발기며 온 누리를 찬연히 밝히는 주체병기들의 거대한 불줄기!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당부였다. 그것은 장군님 맡기고가신 사랑하는 인민의 존엄을 지켜,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를 지켜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시여 흐르는 공기조차 재워진 화약처럼 팽팽하던 화선결사전에서 국방과학자들과 생사를 같이하시던 원수님의 천만고생과 맞바꾼 위대한 헌신의 산아들이였다.

장군님의 영상으로 안겨오는 인민을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굳건히 지켜주시느라 원수님 흔연히 걸으신 새벽길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그 나날에는 불쑥 튀여오른 탄도탄이 공중에서 불덩어리가 된채 머리우로 왕왕 지나가고 다시 떠올라 불길을 토하던 위험천만한 순간도 있었으니 력사의 어느 페지에도 이런 생사결단의 험로를 택한 령도자는 씌여진적 없다.

그 생사결단의 험로와 더불어 적대세력들이 대대로 높이 쌓아온 무기고들은 통곡하며 뒤걸음치는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하거늘 이 행성에서 그 누구도 당할수 없는 지략과 담력을 지니시고 적대세력들을 쥐락펴락하시는 **김정은**위원장이시야말로 세계적인 지도자이시라는 다함없는 칭송의 목소리가 제노라하는 대국들의 한복판에서 울려나오고있는것은 당연한것이다.

세계앞에 무한대의 힘을 과시하며 반만년민족사이래 일찌기 없었던 번영기를 맞이하는 공화국의 앞길에 위대한 장군님은 힘있는 격려를 보내주신다.

공화국의 하늘은 영원히 맑고 푸르리라고!

본사기자 박영진

백두대지에서 안아보는 사랑과 헌신의 세계

조종의 산, 성스러운 산으로 이름높은 백두산아래 삼지연땅에 사회주의선경이 펼쳐지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참석밑에 인민의 리상도시로 변모된 삼지연시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백두산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년시절의 체취가 그대로 어려있고 애국의 원대한 뜻이 깃들어있는 유서깊은 곳이다.

나라와 인민을 령도하시는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주 백두산에 오르시였고 백두산의 칼바람을 맞으시며 새로운 구상을 무르익히군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넋이 어려있는 백두산아래 삼지연땅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의 행복의 별천지를 펼쳐주시였다.

인민들이 바라는것이 하늘의 별이라면 그 별도 따다주시려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은 인민이라는 두 글자로 꽉 차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나날까지 인민을 위해 걷고걸으신 단위는 얼마이고 걸으신 그 거리는 얼마였던가.

그 길에서 장군님 맞으신 눈비는 헤아릴수 없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초불처럼 자신의 한생을 깡그리 불태우시며 인민들의 행복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수많은 씨앗들을 뿌려놓으시였다.

인민들이 좋아하며 기뻐하는 여기에 우리가 시련을 헤치며 혁명을 하는 보람이 있는것이라고, 나는 인민들이 좋아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하겠다고 생각하군 한다시며 애국헌신의 장정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그이께 있어서 기쁨이란 인민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나라도 좋은 일을 해놓는데 있는것이였기에 현지지도의 길에서 겹쌓인 피로도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를 들으시며 푸시군 하시였다.

언제나 장군님의 마음 첫자리에는 인민이 자리잡고있었기에 새로 일떠선 거리와 유원지들을 찾으시면 인민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가를 먼저 알아보시였고 공장이나 봉사단위들에 가시였을 때에는 인민들에게 차례질 혜택을 생각하시며 더없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위해 더 많은것을 해놓아야 하겠는데 시간이 한초한초 흐르는것이 안타깝고, 자신께서는 시계를 자주 보지 않는다고, 시계를 보면 시간이 흐르는것이 너무 안타깝기때문이라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는 오늘도 인민들의 가슴에 뜨거운 격정의 메아리로 울리고있다.

지금으로부터 8년전 1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함경남도를 찾으시였다.

그이께서 현지지도를 마치고 떠나실 때 그곳 일군들은 작별인사를 올리며 건강을 돌보실것을 말씀드리였다. 그때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일하는데 습관이 돼서 일없다고, 자신께서는 아직도 가야 할 곳이 많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가야 온 나라에 승리의 불길이 타번진다고 하시였다.

불편하신 몸이시였지만 순간도 자신을 위한 휴식을 허용치 않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자욱은 하나음악정보쎈터와 광복지구상업중심 등에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이어지였다.

나는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있고싶다, 건설장에 가면 로동자들과 함께 한번 허리가 휘도록 목고를 메고싶고 체육경기를 할 때는 나도 운동장에 뛰여들어 한바탕 달리고싶으며 오락회를 하는것을 보면 나도 그들틈에 끼워 한곡조 뽑아보고싶다, 더우기 밤늦게 일하다가 피곤이 몰리거나 머리가 아플 때면 인민들을 찾아갈 생각이 불쑥불쑥 난다, 하지만 내가 가면 인민들이 어려워하고 그들의 흥을 깰가봐 그러지 못한다고 하신 장군님이시였다.

황홀한 새 거리를 펼치면 또 뵈올가, 최첨단 새 공장을 세우면 또 뵈올가 하고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터치는 이 나라 인민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장군님의 사랑을 오늘도 그대로 이어주시는분은 또 한분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속에 마련된 부강조국건설의 씨앗들을 하나하나 알찬 열매로 맺어가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애민헌신의 길을 이어가고계신다.

그이의 로고속에 오늘은 북부고산지대에 인민을 위한 새 거리, 새 마을이 일떠섰으니 인민사랑의 선경마을을 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듯싶다.

천지개벽된 삼지연시에서 인민들은 행복의 보금자리를 펴고 사회주의문명의 덕,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을 마음껏 향유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은 빛나는 현실로 꽃펴나고있는것이다.

마성희

시

삼지연의 천지개벽

김송림

황홀하구나 희한하구나
백두산기슭의 첫 동네 삼지연
천고밀림 울바자로 두른
력사의 대지에 눈부시게 펼쳐진
오, 사회주의리상향 인민의 무릉도원

바로 예 아니더냐
수령님 항일전의 나날
삼지연못가에서 그려보신 인민의 리상촌
우리 장군님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꼭 안겨주고싶으셨던 행복의 보금자리가

시원하게 뻗어간 거리
걸음길의 보도블로크조차 무심치 않구나
정갈한 눈을 지붕우에 떠이고
멋지게 솟아오른 집집의 창가
하많은 사연 길이 전해 저리도 눈부신가

복받은 땅 복받은 인민들
넘치는 희열과 랑만 눈꽃이 되여 피고
광명성동, 베개봉동, 봇나무동…
이름도 뜻깊어 깊어지는 생각속에
한가슴 차오르는 불같은 뜨거움이여

이 땅의 후손만대가
마음의 태를 묻고 살 고향이여서
사회주의만세소리도
여기 백두산아래에서 제일 크게 울려주시려
자신의 열과 정을 다해 만복을 꽃펴주신
인민의 어버이 **김정은**원수님

황홀경의 이 세계 너무도 꿈만 같고
받아안은 그 사랑 너무 고마워
새 집의 문턱 선뜻 넘어서지 못하노라
밤은 소리없이 깊어만 가도
진정할수 없는 마음들 잠에 들지 못하노라

오, 원수님의 대해같은 은정속에
삼지연에 펼쳐진 천지개벽
그이의 인민사랑의 전설과 더불어
행복의 화원, 별천지는 더 많이 펼쳐지려니
더 좋은 래일을 환희롭게 그려주는
삼지연, 인민의 리상향이여!

천지개벽된 인민의 리상도시 삼지연시

조국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

12월의 조국강산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대하가 되여 뜨겁게 굽이치고있다.

오늘도 온 겨레의 심장속에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로 영생하고계시는 우리 장군님이시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은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의 성스러운 한생이였다. 열렬한 통일의지로 심장을 끓이시고 숭고한 민족애로 온넋을 불태우시며 자주통일을 위한 길에 새겨가신 그이의 헌신의 자욱자욱은 우리 민족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져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분렬의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기 위해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여 나라의 자주적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분렬의 비극속에 신음하는 겨레의 운명을 두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쳐오시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조국통일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은 애국의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라고, 민족의 분렬을 더없는 아픔으로 여기면서 조국통일에 마음과 뜻을 둔 사람이라야 애국심을 가지고있다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은 곧 애국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최대의 애국투쟁이다, 일군들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조국통일과 잇닿아있어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전성기를 펼쳐주시기 위해 위대한 장군님께서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신 그 나날중에는 온 겨레의 다함없는 축원속에 계셔야 할 탄생일도 있다.

주체64(1975)년 2월 16일, 이날 저녁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삼가 인사를 올리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함께 의논해보자고 하시였다.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날에 위대한 장군님을 몸가까이 모시게 된 일군들은 끝없는 기쁨과 함께 송구함을 금할수 없었다. 그러는 그들을 정겹게 둘러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위업이 간고하고 어렵지만 그것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이 세상에 사람이 못할 일은 없다고 오히려 일군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조국통일의 길에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와 심혈이 어찌 그밤에만 한한것이랴.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자욱은 쪽잠과 줴기밥으로 이어가신 현지지도강행군길에도 새겨져있고 최전연의 판문점초소에도 어려있다. 언제인가는 이렇게 깊은 밤길이 조국통일에 가닿아있다면 나는 이제라도 백리, 천리를 더 가고싶다고 절절히 교시하시던 어버이장군님,

자신께서 쉬면 조국통일의 날이 그만큼 늦어진다고 늘 외우시며 어쩌다 차례진 휴식마저 뒤로 미루신 장군님이시다.

정녕 눈물없이 대할수 없고 격정없이 새길수 없는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와 심혈이 있어 조국통일위업은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는 복잡한 속에서도 년대와 세기를 이어 힘차게 전진해올수 있었으며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은 끊임없이 장성강화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을 굳건히 고수하고 드팀없이 계승해나가시며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조국통일위업실현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령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제시하신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자주통일로선과 방침들은 복잡다단한 정세하에서도 조국통일운동이 자기의 주체적성격을 굳건히 고수하며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올수 있게 한 투쟁의 기치, 힘있는 원동력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드시여 조국통일을 이룩하시려는 일관하고 변함없는 의지를 담아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는 어버이수령님의 필생의 념원인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방향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명시한 조국통일의 총서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로 온 겨레를 불러일으키는 고무적기치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해주심으로써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길에서 우리 민족모두가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투쟁의 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또한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고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마련할데 대한 문제, 조국통일을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할데 대한 문제, 련방제방식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문제 등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원칙과 그 실현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조성된 정세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을 위한 근본지침을 마련해주시고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를 민족자주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묶어세우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이다.

나라의 통일을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이룩해야 한다는것은 어버이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신념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투철한 애국의 신념에 의해 주체89(2000)년 6월 평양에서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이 진행되고 6.15공동선언이 채택되였다.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갈수 있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민족자주사상과 애국애족의 뜻은 온 민족을 경탄시켰다. 그이께서 모든것을 조국통일위업에 복종시키시며 무한대한 포옹력으로 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신것은 6.15통일시대의 힘찬 전진을 추동한 원동력이였다.

자주통일시대의 전진과 더불어 활기를 띠고있는 북남관계를 새로운 발전단계에로 올려세워야 할 시대적요구와 평화와 번영에 대한 겨레의 념원을 한몸에 체현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정력적인 활동에 의해 주체96(2007)년 10월 또 한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채택되였다. 10.4선언의 채택으로 북남관계의 획기적발전과 나라의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는 근본토대가 닦아지게 되였다.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재확인한데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호상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북과 남의 협력과 교류를 다방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방도들을 명확히 밝히였다.

실로 누구도 따를수 없는 위인적풍모를 지니시고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를 민족단합과 자주통일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여 조국통일위업실현의 굳건한 토대를 쌓아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은 민족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다.

오늘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은 또 한분의 걸출한 위인이시고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이 땅우에 부강번영하는 통일조국을 일떠세우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특출한 정치실력에 의해 삼천리강토우에는 조국통일운동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없는 눈부신 사변과 기적이 펼쳐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드시여 세차례에 걸친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마련하시여 자주통일위업실현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시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으시였다.

력사와 현실이 보여주고있는바와 같이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불세출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야말로 우리 민족의 운명이시고 통일강국의 밝은 미래이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조국통일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이 땅우에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한명성

◎ 언제나 남녘동포들을 생각하시며 ◎

《지하평양》에 새겨진 동포애

세상사람들로부터 《지하평양》으로 불리우는 평양지하철도에는 남녘동포들을 한시도 잊지 못하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민족애, 동포애가 뜨겁게 깃들어있다.

평양지하철도건설이 한창이던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하철도의 역사들을 장식할 벽화들과 부각상들의 형성도안들을 보아주시면서 거기에 남녘동포들의 모습도 잊지 말고 잘 형상해넣도록 그 주제사상적내용과 형상방도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하기에 평양지하철도를 참관하는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은 저저마다 여기 《지하궁전》에서 남조선인민들의 모습을 보게 되니 겨레에 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뜨거운 동포애의 정을 느끼게 된다고 감격을 금치 못하고있다.

잠 못 이루신 사연

주체84(1995)년 6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으로부터 서울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져내려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였다.

그이께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사고의 경위와 피해상태를 여러차례 알아보시였다. 그러시고는 한 일군을 전화로 찾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저녁시간에 물건사러 나왔던 가정부인들이 수백명이나 파묻혔다니 이런 큰 변이 어디 있습니까, 숱한 아이들이 어머니를 잃고 울고있을텐데 그 애들이 누구보다도 불쌍하게 되였습니다, 정말 가슴아픕니다, 잠간 쉬려고 누웠는데 잠을 이룰수가 없어서 전화합니다라고 못내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하여 동족인 남조선인민들이 당한 불행과 고통을 두고 얼마나 괴로우시였으면 겹쌓인 피로에도 불구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시였겠는가. 국토의 한가운데는 외세가 만든 분렬선이 가로놓여있어도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분계선이 없었고 북과 남이 따로 없었다.

본사기자

오늘도 우리 겨레와 함께

세월이 흐르고 날과 달이 바뀌여도 우리 겨레는 자신의 한생을 초불처럼 불태우시며 민족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끝없이 그리고있다.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애석하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시였으니 온 나라가 비애에 잠기고 인민이 흘리는 피눈물은 강산을 적시였다.

남녘동포들도 조국통일을 위해 한생을 바치신 위대한 령도자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시하였다.

정견과 주의주장, 소속에 관계없이 수많은 남녘겨레가 민족의 어버이를 경건히 추모하였다.

남조선 각계는 민족의 어버이를 뜻밖에 잃은 절통한 심정을 금치 못하면서 조전을 보내여왔다.

남조선의 모든 언론들은 대국상비보로 화면과 지면을 가득 채웠다.

진보적언론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나날까지 정력적인 현지지도강행군을 이어오시다가 야전렬차에서 순직하시였다는 내용을 두드러지게 소개하면서 그것은 이 세상 어느 지도자에게서도 찾아볼수 없는 《광폭행보》, 《폭풍현지지도》, 《순직정신》이였다고 경건히 평하였다.

대국상보도가 나간지 한시간만에 남조선의 《다음》, 《네이버》 등 5대인터네트싸이트들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이 비통함, 국방위원장님의 고귀한 넋은 인민의 심장에 남아 영원히 함께 있을것입니다.》, 《천년만년 인류력사에 칭송되실 **김정일**장군님》 등의 각종 추모글들이 올랐다. 그 수는 무려 12만여건에 달하였다.

인터네트가입자들은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이 현지지도중 겹쌓인 과로로 서거하신것만 보아도 위대한 지도자이심을 알수 있다.》고 하면서 《인민을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시다 과로로 세상을 떠나시는 지도자는 세상에 태여나서 북녘의 지도자밖에 보지 못했다.》고 비통함을 금치 못해하였다.

남조선 각계층은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안고 너도나도 조문단을 무어 평양으로 향하였다.

전 《대통령》 김대중의 부인 리희호녀사를 비롯한 여러 인사들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수백리길을 달려와 위대한 장군님의 령전에 조의를 표시하였다.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련대 공동대표 황혜로도 사선을 헤치고 평양을 방문하여 민족의 어버이의 령전에 삼가 인사를 올리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각기 조문단을 구성하였다. 《6.15마음으로 조문간다》고 쓴 프랑카드를 들고 북행길에 나선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인사들은 군사분계선앞에서 남조선군에 의해 저지당하자 《우리는 **김정일**국방위원장 조문간다. 길을 비켜라.》고 추상같이 웨치면서 견결히 맞서싸웠다.

《보안법》피해자모임, 우리 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항일독립운동가협회 등 시민단체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남조선당국이 조의표시와 조문을 탄압하는 속에서도 각지에 분향소들을 설치하고 조의를 표시하였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대학교학생회관에 차려놓고 장군님의 서거에 삼가 조의를 표시하였다.

당국의 탄압에 대응하여 각계층 인민들은 인터네트에 수많은 분향소들을 설치하고 조의표시를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뵈웠던 정계, 사회계인사들은 더욱더 애석해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조의를 표시하였다.

전라북도 전주시 모악산기슭에 자리잡은 전주김씨의 시조묘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력사적인 6월 평양상봉시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주김씨라고 하신 일화를 뜨겁게 회고하면서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데 대한 애석함을 금치 못하였다.

그때로부터 8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조국통일의 찬란한 구성이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과 흠모의 정은 오늘도 남녘인민들의 가슴마다에 고패치고있다.

본사기자 강류성

통일애국의 련정을 더듬어 (19)

민족대통일전선형성을 위한 북남정치협상회의 제안

1980년대말~1990년대초에도 조국통일을 위한 공화국정부와 인민의 투쟁의 앞길에는 준엄한 시련과 난관이 조성되여있었다.

동유럽나라들의 붕괴와 이전 쏘련의 해체로 하여 동서랭전구조는 허물어지고 《힘의 균형》이 파괴되게 되였다.

이를 기화로 미국은 《유일초대국》임을 자처하며 힘으로 세계지배전략을 실현하려고 더욱 발광하였으며 반제자주의 기치, 사회주의기치를 굳건히 옹호고수해나가는 공화국에 공격의 총 화살을 돌리였다. 미국과 그 추종국들, 남조선당국자들은 공화국에 대한 《핵의혹》소동을 벌리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으며 서부도이췰란드에 의한 동부도이췰란드의 흡수통일방식을 본딴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더욱 전면에 내세웠다.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공화국은 자기의 힘을 강화하면서 민족의 대단합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였다.

여기에서 선차적으로 나선 중요한 문제는 북남당국이나 특정한 계층의 의사만을 대변하는 대화가 아니라 북과 남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의 의사를 민주주의적으로 반영하는 전민족적인 대화를 실현하는것이였다.

이 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련방제통일방안에 대한 민족적합의에 기초하여 그 실현대책을 진지하게 협의할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 북과 남, 해외의 접촉과 리해, 신뢰를 두터이 하고 3자련대를 성과적으로 실현하여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할수 있었다.

당시 남조선에서는 1987년 6월인민항쟁이후 부분적으로 열려진 정치공간속에서 통일의 열기가 앙양되고있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양키는 제 집으로, 남북은 통일로!》, 《가자 한나산에서, 오라 백두산에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구호를 들고 북남학생회담과 국토종단대행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웠으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지식인, 종교인을 포함한 각계각층 인민들도 민주주의적인 투쟁조직을 결성하고 공화국북반부형제들과의 접촉과 대화를 주장하면서 대중적인 통일운동을 활발히 벌렸다. 남조선의 야당들과 재야정치세력들도 련방제방식에 대하여 공감을 표시하고 련방형태의 통일방안을 주장해나섰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 소수의 운동이 아니라 다수의 운동으로 전환되고 일부 계층에 국한된 운동이 아니라 각계층을 망라하는 대중적운동으로 확대되고있으며 단순한 통일론의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하여 련방제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발전하고있음을 보여주는것이였다.

특히 공화국정부의 적극적이며 진지한 노력에 의하여 1980년대에 북과 해외동포단체들사이에 대화와 련대가 실현된것은 전민족적대화실현의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78(1989)년 신년사에서 가까운 시일안에 평양에서 북과 남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의사를 대표할수 있는 지도급인사들의 북남정치협상회의를 가질데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시였다. 그러시면서 남조선의 《민주정의당》,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총재들과 김수환추기경, 문익환목사, 백기완선생을 평양에 초청하시였다. 또한 이 정치협상회의의 테두리안에서 북과 남의 지도급인사들은 다무적인 회담뿐아니라 쌍무적인 대화도 나눌수 있을것이라고 하시였으며 남조선의 지도급인사들이 건설적인 통일방안을 가지고 평양을 방문한다면 그들을 환영할것이며 그들이 내놓은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도 함께 허심탄회하게 협의할것이라는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이 새로운 협상방안은 남조선당국자들의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당장 남조선의 모든 정당, 단체, 각계 인사들과 대화와 협상을 실현할수 없는 조건에서 전민족적대화마당을 마련하여 통일방도에 대한 민족적합의를 이룩하며 민족대통일전선의 형성을 촉진시킬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통일방안이였다.

참으로 북남지도급인사들의 정치협상회의소집제안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라의 영구분렬을 막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애국애족적인 발기였다.

공화국정부는 주체78(1989)년 1월 4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새롭게 밝혀주신 조국통일방안들을 지지하여 발표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담화에서 북남지도급인사들의 정치협상회의제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담화에서는 북남지도급인사들의 정치협상회의에서 사상과 제도, 정견의 차이를 뒤로 미루고 모든것을 통일의 대의에 복종시켜 상정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해나간다면 의심할바없이 전민족적인 합의에 기초한 훌륭한 통일방도를 마련할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실현하여 올해에 반드시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실질적인 전진을 이룩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갈데 대하여 호소하였다.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1월 5일 발표한 담화에서 정치협상회의제안을 환영하고 공화국의 청우당원들과 천도교인들은 《보국안민》을 지향하는 천도교의 교리에 맞게 정치협상회의가 조속히 실현되도록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며 이 기회에 근대민족사의 개벽군으로 되여온 남조선의 천도교동덕들이 새해에는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기대를 가지고 통일운동의 선두대렬에 나서게 되리라는것을 믿는다고 지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 대변인은 1989년 1월 7일 미국무성이 《팀 스피리트 89》합동군사연습계획을 선포한것과 관련하여 1월 9일에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은 군사적도발로 대결을 부추기고 긴장을 격화시키는 행위를 당장 중지하며 남조선당국자들은 외세의존에서 벗어나 대화분위기를 파괴하는 행동을 그만두고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전민족적운동에 합류할것을 촉구하였다.

공화국북반부의 제 정당, 사회단체, 각계 인사들은 북남지도급인사들의 정치협상회의준비위원회를 내오고 남조선 여야당 총재들과 지도급인사들에게 그 실현을 거듭 촉구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공화국정부의 성의와 노력을 외면하고 범죄적인 《북방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모략선전에 계속 매여달리면서 북남고위급인사들의 정치협상회의제안을 악랄하게 방해해나섰다.

미국의 각본에 따라 남조선당국자들이 들고나온 《북방정책》은 북쪽의 사회주의나라들에 《문호를 개방》하고 체육, 문화, 경제교류의 단계를 거쳐 《국교수립》에까지 나간다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북방정책》을 통하여 추구하는 목적은 분렬주의적인 《교차승인》을 실현함으로써 저들의 《유엔가입》을 차단해온 《사회주의벽》을 허물고 《두개 조선》조작의 돌파구를 열어보려는데 있었다.

하지만 공화국정부의 애국애족적인 정치협상회의제안은 남조선인민들과 정계, 사회계의 진보적인사들속에서 한결같은 지지와 환영을 받았다.

박철우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호전광들의 대결망동

최근 남조선군부의 군사적 대결망동이 갈수록 도수를 넘어서고있다.

얼마전 남조선국방부가 《2019년말 전군주요지휘관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최근 북이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위반하였다, 2019년에 들어와 13차례 미싸일을 발사하였다,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주장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키고있다, 군부는 이를 예의주시하고있다고 떠벌인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그러면서 《전방위적인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확립》,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뒤받침하는 강군건설》 등 2020년에 첨단국방을 위한 《5대국방운영중점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력설하였다.

첨단무장장비개발도입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는것도 그렇다.

얼마전 남조선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부것들은 《124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벌려놓고 요격고도가 50-60㎞인 장거리지상대공중미싸일 《L-SAM》의 체계개발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한편으로는 12월중으로 스텔스전투기 《F-35A》와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공중급유기 《KC-330》 등 최신공격무기들과 첨단무장장비들을 련이어 반입하고 지금까지 미루어오던 스텔스전투기 《F-35A》의 전력화행사도 곧 벌려놓겠다고 광고해대고있는 형편이다.

도적이 도적이야 한다고 마치 조선반도정세긴장의 책임이 공화국에 있는듯이 여론화하고 이를 구실로 저들의 광란적인 적대적군사행위를 합리화해보려는 실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망동이라 해야 할것이다.

남조선군부가 온 한해동안 외세와 야합하여 번번이 벌려온 각종 명칭의 합동군사연습들과 집요하게 추진해온 첨단무장장비개발도입 등 엄중한 군사적대결책동으로 하여 오늘 정세가 첨예했던 과거에로 되돌아가고있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의 《북남군사분야합의위반》과 《정세긴장고조》를 떠드는것이야말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해보려는 적반하장의 극치가 아닐수 없는것이다.

더우기 남조선당국이 운운하는 《튼튼한 국방태세확립》이란 미국과 함께 임의의 시각에 북침전쟁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것이라는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런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평화》, 《전쟁불용》, 《공동번영》과 같은 낯간지러운 소리를 입에 올려봐야 그것은 내외여론에 대한 기만우롱으로밖에 안된다.

아무리 그래봐야 《대화》와 《평화》의 간판을 들고 온 한해 동족을 반대하는 전쟁불장난과 무력증강책동에 광분해온 남조선군부의 망동은 그 무엇으로써도 합리화될수 없는것이다.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고 전쟁위험을 증대시킨 남조선호전광들에게 차례질것이란 온 민족의 저주와 규탄뿐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호통치는 강도

남조선당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증액요구가 날로 더욱 거세여지고있다.

지금 미국무성과 국방성은 물론지어 남조선주재 미국대사까지 나서서 남조선당국에 50억US$에 달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방위비분담금》증액을 요구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수는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 상전을 설득시켜 《방위비분담금》증액한도를 최대한 낮추어보려고 안깐힘을 쓰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방위비분담금》은 기존협정의 틀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에서 결정되여야 한다고 모지름을 쓰면서 저들이 평택미군기지건설비용의 90%를 부담한 문제, 《F-35A》를 비롯하여 수십억US$에 달하는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고있는 문제, 《방위비분담금》증액비률이 10%를 넘어서는 경우 《국회》비준동의를 받기 힘들다는 문제, 이미 지출된 《방위비》가운데서 무려 17억US$나 미국이 쓰지 않고 그대로 안고있는 문제 등을 내들고 미국을 달래여 비용부담을 최소화해보려고 하고있다. 강박하는 상전앞에서 구차하게 놀아대는 남조선당국의 추태는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이다.

따지고보면 미국은 남조선에 대해 《방위비분담금》을 내라고 호통칠 아무러한 리유도 없다.

미국이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있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의 요구와 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계제패전략실현을 위한 저들의 전략적요구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이런 미국이기에 지난 70여년간 남조선을 강점하고 주인행세를 하면서 남조선인민들의 고혈을 짜내고 온갖 치떨리는 만행을 다 저질렀다.

남조선강점 미군으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에게 차례진것은 침략전쟁소동으로 인한 항시적인 전쟁위험과 불안이였다. 온 남조선땅이 미군사기지로 전변되여 소중한 땅들이 황폐화되는 속에 매일과 같이 벌어지는 미군범죄로 하여 언제 한번 마음편히 살수 없는 남조선인민들이다.

이렇게 놓고보면 미국은 남조선에 주둔비는 물론 피해보상금까지 내야 할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증액을 강요하는것은 그대로 남의 집에 틀고앉은 강도가 집을 지켜준다는 미명하에 집주인에게 돈을 내라고 하는것과 다를바없다.

날로 로골화되는 미국의 파렴치성과 야만성에 남조선인민들이 들고일어나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최근 민주로총, 민중공동행동, 《한국진보련대》를 비롯하여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이 련일 미국규탄집회를 열고 《미국의 요구는 주권강탈이자 혈세강탈이다.》, 《미국은 동맹국이 아니라 날강도이다.》, 《미국에 단한푼도 줄수 없다.》, 《한미방위비협상 중단하라!》, 《한미동맹 끝장내자!》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현 당국에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페기, 합동군사연습중단, 남조선강점 미군축소 및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이런 속에 얼마전에 있은 여론조사들에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대폭증액요구를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된다는 여론이 83%로서 절대다수로 나타난것은 미국에 대한 증오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그대로 보여준다.

본사기자 안권일

자주에 살려는 남녘의 열망

남조선에서 외세의 간섭을 끝장내고 민족자주의 길로 나아가려는 투쟁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지난 11월말에도 70여개의 운동단체들이 서울에서 긴급시국회의를 열고 미국과 일본의 로골적인 《내정간섭》과 《주권침해》를 단호히 저지시키고 보수적페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대중투쟁을 강도높게 벌려나갈것을 결의하고 당면한 투쟁계획과 투쟁구호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진보운동단체들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은 서울에서 《2019 전국민중대회》를, 《검찰개혁, 사법적페청산 범국민시민련대》와 《한국대학생진보련합》은 남조선 《국회》청사주변에서 제13차 초불집회를, 아베규탄시민행동과 《광화문초불련대》는 미국대사관과 《자한당》청사앞에서 반미, 반일, 반보수집회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였다.

특히 집회참가자들은 《한미동맹파기》, 《외교깡패 미국대사 추방》, 《자한당 해체》, 《진정한 자주독립을 위한 초불을 들자!》, 《국민의 힘으로 미국의 내정간섭 끝장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자!》 등의 구호를 웨치며 미국대사관으로 돌진하여 신발을 벗어던지고 미국성조기를 찢어버리면서 격렬한 투쟁을 벌리였다.

외세의 간섭을 끝장내고 진정한 자주독립을 실현하려는 남조선민심의 강렬한 지향과 굳센 의지의 분출로서 지극히 응당한것이다.

다 아는것처럼 미국은 남조선을 강점한 때로부터 70여년간 남조선에 대한 지배와 예속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분렬의 장벽만을 덧쌓으면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을 거세말살하였다.

남조선을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실현을 위한 핵전초기지로, 《동맹》이 아니라 폭리를 얻을수 있는 돈벌이대상으로, 침략적인 《한미일3각군사동맹》구축을 위한 한갖 수단으로밖에 보지 않는것이 바로 미국이다.

미국이 남조선당국을 강박하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기시키고 《방위비분담금》을 현재의 5배이상인 50억US$로 늘이라고 날강도적인 요구를 내리먹이고있는 사실은 이를 잘 말해주고있다.

미국의 파렴치한 전횡과 오만한 침략적야욕을 그대로 두고서는 언제 가도 남조선사회의 자주, 민주, 평화는 물론 초보적인 삶의 요구도 실현될수 없는것이다.

민족자주를 실현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정의로운 투쟁으로서 누구도 막지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영진

본성을 드러낸 《정치검찰》

남조선에서 《무소불위》의 칼날을 마구 휘둘러대는 검찰에 대한 민심의 저주와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얼마전 남조선검찰은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퇴물협의로 긴급구속한데 이어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놀음을 벌리였다. 이번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놀음은 현 당국의 지난 2018년 울산시장선거개입의혹사건, 청와대의 《백원우별동대》가 적폐청산을 조직지휘한 의혹사건, 현 당국자의 핵심측근인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류재수의 부정부패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킨 의혹사건 등을 해명한다는 미명하에 진행되였다고 한다.

지금 남조선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제기된 사건들의 배후라고 떠들면서 이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배당하고 여기에 전 법무부 장관수사에서 악명을 떨친 수사팀까지 배속시켜 그 어느 사건보다 강도높이 수사를 진행하고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조사내용들을 언론에 흘리면서 현 당국에 흠집을 내고 보수세력들의 반《정부》공세에 구실을 제공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 당국과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수많은 사회 각계층은 《검찰이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표적수사에 나섰다.》, 《전형적인 정치개입이고 정치수사이다.》라고 하면서 공정한 사건수사를 검찰에 요구하고있다.

결코 틀린 소리가 아니다.

이번에 검찰이 청와대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진행하는 청와대의 지방자치제선거개입의혹사건은 2018년 3월 당시 《자한당》소속 울산시장이 그해 6월에 있은 선거에서 자기가 락선된것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자기의 부정부패자료들을 수집하여 울산지방경찰청에 넘겨주어 수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였기때문이라고 하면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나도록 사건에 관심이 없던 검찰이 최근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과정에 청와대의 지방자치제선거개입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였다고 언론에 공개하면서 수사놀음을 벌리고있는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남조선검찰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고소고발한 《국회》란동사건의 주범인 《자한당》소속의원들과 전 원내대표 라경원의 부정부패사건에 대해서는 강건너 불보듯 하고있다.

이것은 검찰이 사건수사에서 2중기준을 적용하면서 《자한당》과 야합하고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현실은 초불민심의 요구에 따라 독재적인 검찰을 개혁하려는 현 당국을 물어메치고 어떻게 해서나 그것을 막아보려는 검찰의 행태가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를 그대로 보여준다.

파쑈독재《정권》의 손발이 되여 온갖 적폐만 쌓아온 검찰을 개혁하지 못하게 되면 민심이 요구하는 적폐청산이 실패하고 그로 하여 차례지는 후과는 퇴임후 부정부패협의로 자살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로무현의 전철을 밟는 길이 될것이라는것은 뻔한 일이다.

다음 《총선》을 앞두고 민주개혁세력들을 탄압하려는 《자한당》과 이에 야합한 검찰의 정치폭거는 《자한당》과 적폐세력들에 대한 민심의 비난기운만을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김노을

망신스러운 입방아질

얼마전 남조선외교부가 2018년 당국의 주요외교 《성과》를 기록한 《2019 외교백서》를 발간하였다.

문제는 백서에서 저들의 《주도적인 노력》에 의해 조선반도긴장완화와 《북핵문제해결의 전기》가 마련된것처럼 사실을 오도한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이에 대해 2018년 남조선강원도 평창에서 진행된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조선반도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에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였다, 《정부》는 이때부터 북남관계개선과 조미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외교적노력을 지속해왔다고 늘어놓았다.

특히 지난해에 진행된 세차례의 북남수뇌회담과 한차례의 조미수뇌회담과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북남대화가 재개되고 력사상 첫 조미수뇌회담이 개최되여 조선반도긴장완화와 함께 《북핵문제해결의 전기》가 마련되는 등 《기념비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있다고 떠들었다.

이런것을 보고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해야 할것이다. 전쟁위기로 치닫던 조선반도정세가 극적으로 완화되고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를 위한 획기적전환점이 마련된것은 공화국의 통큰 결단과 주동적인 조치가 있었기때문이라는것은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물론 국제사회계가 일치하게 인정하며 격찬하고있는 사실이다.

저들이 미국에 발목이 묶이워 북남합의를 어느 한 조항도 리행한것이 없는 주제에 창피하지도 않는지…

외세와의 합동군사훈련과 첨단무장장비도입 등 동족대결과 외세의존에 끊임없이 매달려 좋게 흐르던 조선반도정세와 북남관계를 험악하게 만들어놓은 장본인들이 죄의식은커녕 《치적》자랑을 하고있으니 참으로 역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남조선당국이 온 한해 한짓이란 민족의 규탄을 무릅쓰고 친미친일굴종외교로 세월을 보낸것밖에 더 있는가.

그것으로 산생된것은 북남관계의 경색과 대미종속의 심화, 주대도 없이 외세의 손탁에 놀아난데 대한 민심의 실망과 환멸뿐이다.

저들이 저지른 죄행에 대해 심각히 돌이켜볼 대신 명색이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며칠전 서울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DMZ국제평화지대화구상에 북이 호응해야 한다.》고 떠든것도 모자라 그 무슨 토론회라는데서 남북간 협력의 공간들을 적극 발굴하고 넓혀나가겠다고 력설한것도 웃기는 일이다.

이것은 북남관계를 교착상태에 몰아넣은 범죄적행위를 가리워보려는 철면피한 작태이며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는듯이 여론을 오도해보려는 허무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차라리 사대와 굴종의 멍에를 벗어던질 용기가 정 없으면 세상이 누구에 의해 돌아가는가라도 바로 보고 창피스러운 입방아를 그만 찧는것이 좋을것이다.

리경희

감출수 없는 력사의 죄악

력사에 남긴 흔적은 그 무엇으로써도 감출수도 없고 미화분식한다고 하여 가리워지지 않는다.

최근 일본에서 과거 일본군이 저지른 성노예범죄의 죄악을 고발하는 문서장이 발견되였다.

이번에 발견된 1938년 중국 산동성 청도에 주재하던 일본총령사의 보고서에는 《해군측은 예작부(예기+작부) 합계 150명정도 증가를 희망하고있으며 륙군측은 병사 70명에 대해 1명정도의 작부가 필요하다는 의향》이라고 적혀있다. 또한 외무상을 수신자로 작성한 보고서에는 《황군이 전진하는 경우를 내다보고 4월말까지 적어도 당지에 5 000의 특수부녀를 집중해》라고 기술하거나 강소성 서주 점령(1938년)뒤에는 《군용차에 편승한 특수부녀 186명이 남하했다.》는 기록도 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다른 보고서에는 작부, 특수부녀에 대해 매춘녀성과 같은 의미로 기재됐다.》며 《이들이 위안부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번 기록은 2017-2018년에 수집한 23건의 문건중 13건에서 나온것중의 일부로서 과거 일본정부가 일본군 성노예모집과 관리에 직접 관여했다는것을 그대로 증명해주는것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과거 일본군이 저지른 성노예범죄는 전대미문의 반인륜범죄이다.

세상에는 군대가 많고 또 수많은 전쟁이 진행되였어도 과거 일본군처럼 침략전쟁터에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녀성들을 끌고다니며 성노예생활을 강요한 경우는 없다.

지금 몇명 남지 않은 성노예피해자들은 과거 일본군이 저지른 반인륜범죄를 만천하에 고발하는 산증인들이다.

죄악의 문서장들이 계속 공개되고 산증인들의 피타는 절규에도 일본은 아직까지도 과거 일본군이 저지른 치떨리는 성노예범죄를 인정하지 않고있다. 지어는 성노예피해자들을 돈에 매인 《매춘부》로 모독하며 그들의 아물수 없는 가슴속 상처를 또다시 란도질하고있다.

실로 섬나라족속들만이 할수 있는 야만성과 파렴치성의 극치이다.

과거죄악을 부정하는것은 앞으로 그런 죄악을 또다시 저지르겠다는것과 다름이 없다.

지금 일본은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대동아공영권》의 망상을 실현하기 위해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을 《유럽인들로부터 아시아를 지키기 위한 자위전쟁》이라는 궤변으로 저들의 과거죄악을 미화분식하는 력사외곡책동에 혈안이 되여 날뛰고있는 속에 《평화헌법》을 《전쟁헌법》으로 뜯어고치기 위한 헌법개악책동을 날로 로골화하고있는것이 바로 일본이다.

이와 더불어 일본은 직승기항공모함인 《이즈모》함을 《F-35B》수직리착륙스텔스전투기를 운영하는 경항공모함으로 개조하고 2023년까지 호위함 54척, 이지스구축함 8척, 해상초계기 65대, 해상작전직승기 80대, 잠수함 22척을 보유하는 등 일본《자위대》를 해외침략의 돌격대로 준비시키기 위해 분별없이 날뛰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일본《자위대》를 최첨단 군사장비로 무장시키는것과 동시에 《세계평화》의 미명하에 아시아인민들의 눈에 불이 나게 하는 피묻은 《욱일기》를 펄럭이며 일본《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있다.

일본의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책동은 이미 위험계선을 넘어섰다.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의 옛 망상을 실현하기 위해 언제 재침의 불길을 저지를지 그 누구도 예측할수 없다.

날로 무분별해지는 일본의 재침책동은 세계의 많은 나라 인민들의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불을 즐기는자는 불에 타죽기마련이다. 과거죄악에 대한 성근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오히려 침략전쟁책동에만 열을 올리고있는 일본이 재침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다면 그 불길속에 저들이 타죽는 비극만 초래할뿐이다.

신항명

단평

나올것이란 샘물 아닌 독물

최근 남조선의 《자한당》 대표 황교안이 현 당국의 《국정롱단을 심판》하겠다며 《장외투쟁》이란것을 또 벌려놓았다고 한다.

지난 시기에도 《장외투쟁》이란것을 벌린바 있는 황교안이다.

이런 황교안이 또다시 《장외투쟁》을 하는것을 보면 그 《장외투쟁》이란것에 매우 집착된것 같다. 그럴수밖에 없는 황교안이다.

권력탈취의 야심밑에 황교안이 여기 집적, 저기 집적하는 식으로 《장외투쟁》과 삭발, 단식놀음을 벌렸지만 인기는 고사하고 민심의 저주만 받았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도 《장외투쟁》놀음으로 보수세력들을 어느 정도 끌어들였다고 생각하는 황교안이다.

아마도 이런 리유로 황교안은 샘물이 날 때까지 한우물을 파야지 물이 안 나온다고 여기 파고 저기 파다가는 공연히 힘만 들이며 헛수고만 할수 있다는 얄팍한 생각밑에 또다시 《장외투쟁》이란 놀음을 벌린것이리라.

황교안이 권력이라는 달콤한 샘물을 찾아 《장외투쟁》이란 우물을 파고있지만 거기서 나올것이란 파멸의 독물뿐이다.

김응철

덕과 정으로 화목한 나라

오늘 공화국은 세상에 둘도 없는 위대한 일심단결의 나라로 존엄떨치고있다.

전체 인민이 령도자를 중심으로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치고 온 사회에 덕과 정이 차넘치는 사회주의대가정, 바로 여기에 공화국의 사회주의참모습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과정에 남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존경과 사랑, 고마움의 감정도 가지게 된다.

뜻과 정, 의리에 사는것이 사람이며 이것을 떠나 인간생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공화국은 덕과 정이 차넘치고 전체 인민이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결합된 일심단결의 화원이다.

덕과 정으로 결합된 공화국의 참모습은 누구나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데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개인의 향락보다도 사회와 집단, 부강번영할 조국의 래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은 공화국인민의 고유한 풍모이다.

이 땅에서는 누구나 국가사회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는것을 더없는 기쁨으로 여기고있다.

공화국에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참된 애국자들이 수없이 많다. 그들속에는 수십년을 하루와 같이 맡겨진 초소를 성실히 지켜가고있는 련못무궤도전차사업소의 공훈자동차운전사부부도 있고 대학을 졸업하고 산골학교와 섬분교들에 자원진출한 대학졸업생들도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 사랑과 정을 다해 조국을 받들어나가는것은 의무이기 전에 량심이고 숭고한 도덕의리로 되고있다.

자기자신보다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먼저 생각하며 불같이 헌신하는 이런 애국자들이 있어 공화국의 전진이 더욱 가속화되고 희망찬 미래가 앞당겨지고있는것이다.

덕과 정으로 결합된 공화국의 참모습은 누구나 동지애와 의리에 기초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살아나가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위기일발의 순간에 서슴없이 자기의 한목숨을 바쳐 동지들을 구원하고 사경에 처한 사람을 위해 피와 살도 아낌없이 바치는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 처녀의 몸으로 부모잃은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여주고 영예군인의 안해와 남편이 되여 그들과 일생을 같이하는 훌륭한 소행들은 뜨거운 인간애와 의리심에 기초한 공화국에서만 발휘될수 있는 미풍이다.

공화국에는 생활상애로나 어려움도 있다. 더우기 적대세력들은 야만적인 제재봉쇄로 이 나라 인민의 정신도덕적풍모, 온 사회에 공기처럼 흐르는 덕과 정을 말살하려고 꾀하고있다.

그러나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남을 위하여 자기를 서슴없이 희생할줄 아는 이 나라 인민의 숭고한 도덕의리와 인정의 세계를 절대로 허물수 없다.

그것은 이 땅에 지배하는 고상한 인간미와 순결한 륜리도덕이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동지적사랑과 의리에 기초하고있기때문이다.

인민사랑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고결한 덕망과 숭고한 풍모, 원수님께서 펼치시는 인민사랑의 정치는 공화국을 덕과 정이 만발하는 인간사랑의 대화원으로 꽃피우는 자양분이다.

공화국인민은 사회주의대가정에서 사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사회주의강국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진혁

다종화, 다양화된 질좋은 건재품들

—각 도건재전시회—2019를 돌아보고—

얼마전 5월1일경기장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주최로 각 도건재전시회—2019가 진행되였다.

《자기의 자원과 기술로 더 훌륭하게》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전시회에는 건축시공에 리용되는 일반건재, 마감건재, 기능성건재와 그 생산기술공정을 비롯하여 각 도의 830여개의 건재생산단위에서 내놓은 6만 6 600여점의 전시품이 출품되였다.

각 도들에서 건축시공에 필요한 건재품들의 질을 높이고 건재의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한 성과들이 출품된것으로 하여 수많은 참관자들이 전시회장을 찾아왔다.

평양시에서는 최근년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백수십여개의 건재생산단위들을 개건현대화하고 생산능력을 확장한데 기초하여 만든 일반건재, 기능성건재를 비롯한 질좋은 건재품들을 이번 전시회에 내놓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현대적인 건재생산기지들을 꾸려놓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한 각종 마감건재들을 출품하였다.

기자와 만난 강원도인민위원회의 한 일군은 도에서 각종 칠감과 타일, 위생자기를 비롯하여 지방의 원료와 자재로 생산되는 마감건재들의 종류가 날로 늘어나고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그는 안변요업공장만 놓고보아도 다양한 타일들과 각종 위생자기들, 기능성보온재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강력한 마감건재생산기지로 전변되였다고 하면서 공장에 갖가지 문양의 고급타일들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낼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갖추어졌다고 말하였다.

이번 전시회에 해당 건재생산단위들에서 지방원료를 리용하여 생산한 특색있는 마감건재품들도 출품되여 도들마다에서 경쟁적으로 벌어지고있는 마감건재생산열풍을 잘 보여주었다.

황해북도에서는 록색건축을 지향하는 세계적추세에 맞는 경소마그네샤건재품을 만들어 전시회에 내놓았다.

사람들의 건강에 좋은 음이온을 내보낼뿐만아니라 목재를 전혀 쓰지 않으므로 나라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할수 있는 이 제품은 수입에 의거하지 않고 자체로 만든것으로 이목을 끌었다.

평양시에서는 돌가공부산물을 가지고 여러가지 돌무늬를 새겨 건물의 외부를 더욱 품위있게 장식할수 있는 돌무늬장식칠감과 함께 돌장식분무외장재, 장식무늬칠감, 유기질수성외장재, 기능성비소성타일, 도로바닥표식선칠감, 항균내장재 등을 출품하였다.

자강도에서는 이번 전시회에 지방에 흔한 목재와 돌을 리용한 마감건재제품들을 출품하였다.

목재를 리용하여 만든 가구일식과 자기 지방에서 나는 천연석재를 가지고 만든 여러 돌가공제품들은 무늬와 색갈이 곱고 견고한것으로 하여 호평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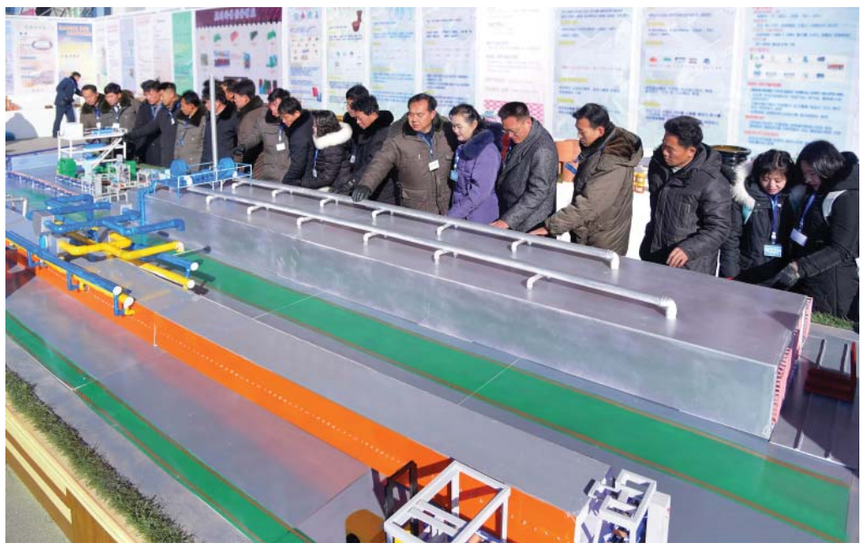
평안남도에서는 자기 지방에 흔한 견운모, 백토, 고령토, 고회석 등 천연광물질재료를 리용한 칠감을 자체의 힘으로 개발하였는데 수명이 길고 원가가 적게 들며 자외선로화견딜성이 높은것으로 하여 련관단위 일군들의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평안북도에서도 국내에 무진장한 비목재섬유식물인 갈을 리용하여 만든 고밀도섬유판을 비롯한 여러가지 건재제품들을 출품하였다.

각 도들에서 출품한 전시품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튼튼히 의거하여 질좋고 다양한 마감건재품들을 연구개발하겠다는 높은 각오를 가지고 이악하게 달라붙어 이룩한 자력갱생의 창조물들이다.

이번 전시회는 지방에 흔한 원료와 선진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원가를 최대한 낮추고 품질이 담보되는 여러가지 용도의 건재품들을 개발생산하는데서 의의있는 계기로 되였다.

본사기자 김철



듣던것과는 다른 조국의 모습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발간하는 잡지 《백두—한나》에 재중동포 김광건이 공화국을 방문하고 느낀 소감을 적은 글이 실리였다. 글은 다음과 같다.

나는 심양시 조선족동포들과 함께 공화국을 방문하였다.

사실 공화국을 방문하기 전에는 여러가지 생각들이 많았다. 공화국을 아니 꼽게 생각하는 나라들에서 기회만 있으면 조선을 비방중상하는 허위보도를 많이 쏟아붓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 렬차가 평양에 도착하여 안내원들이 우리일행을 뜨겁게 맞이해주고 민족의 전통료리향기가 그윽하게 풍겨오는 저녁식사도 푸짐히 차려 우리를 친형제마냥 대해줄 때 우려의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하였다.

첫인상부터 아주 좋았다. 나는 평양시내 여기저기를 다녀보면서 듣던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것을 강하게 느꼈다.

평양은 수종이 좋은 각종 가로수들로 장식되였고 맑고 푸른 대동강과 보통강이 시내중심으로 흐르고있어 매우 아름다웠다.

사람들 역시 문명해보였다. 시내의 도로들에 차들이 많지 않았으나 사람들은 교통규칙을 지키면서 자각적으로 도로를 건느고있었다.

뻐스정류소들에는 시민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뻐스를 기다리고있었으며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환한 모습이였다.

공화국에 와서 현실을 직접 목격하고보니 지금껏 들어왔던 온갖 비방선전이 모두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거짓임을 온몸으로 느낄수 있었다.

우리일행은 조선의 명산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원산육아원, 애육원에도 들리였다.

동해기슭을 따라 뻗은 길옆에는 특이한 솔숲이 있는가 하면 하늘을 찌를듯 한 멋쟁이 수삼나무가로수들이 줄지어 서있었고 눈뿌리 아득한 백사장이 펼쳐져있어 우리는 연해연방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멀리서 안겨오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글발을 보면서 우리들은 저곳이 바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라고 짐작하였다. 야영소에 도착하니 그곳 일군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며 우리와 함께 야영소를 돌아보았다. 야영소에는 수족관, 체육관, 물놀이터를 비롯하여 아이들의 야영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최상의 수준에서 마련되여있었다.

이어 우리일행은 멋지게 건설된 원산육아원과 애육원을 참관하였다. 원산육아원과 애육원에도 보육과 교육교양, 성장발육, 지능계발에 필요한 교구비품들과 운영물자 등이 충분히 갖추어져있었다.

우리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원산육아원, 애육원을 참관하면서 조선의 령도자들께서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시고 아이들에게 훌륭한 야영소들을 안겨주신데 대하여, 특히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하여 육아원과 애육원들을 훌륭히 일떠세워주시고 국가가 전적으로 맡아돌봐주도록 해주신데 대하여 커다란 감동을 받았으며 조선식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페부로 절감하였다.

공화국은 진정 아이들의 왕국임이 틀림없었다.

나는 이번 방문을 통하여 공화국에 대하여 다시 인식하게 되였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내세워주는 나라는 미래가 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천품으로 지니고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들에게 최상의 문명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고계신다.

그리고 인민들이 자기의 령도자를 진심으로 받들어모시고있는것으로 하여 어딜 가나 화목한 대가정의 분위기였다.

나는 이런 나라를 그 어떤 힘으로도 억제할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공화국이 제국주의의 패권주의적망동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의 자주권을 당당히 고수해나가고있는 모습에서 커다란 긍지감을 느끼고있다.

공화국의 미래는 밝고 창창할것이다.

본사기자

조선의 경험을 따라배워야 한다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대표단 성원들이 강조

공화국을 방문한 로씨야주체사상연구협회대표단 성원들은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철저히 구현된 조선식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단원 알렉쎄이 싸흐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을 처음 방문하는데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다.

체류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보고 듣는 모든것이 상상을 초월한다.

평양의 거리는 깨끗하고 질서정연하였으며 사람들은 생기와 활력에 넘쳐있었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인민이 사회의 주인이 되고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조선의 현실이다.

곳곳에 웅장하게 일떠선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서는 인민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현대적인 초고층살림집들에서는 평범한 근로자들이 살고있었다.

국가가 인민들에게 살림집을 무상으로 제공하고있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

조선에서는 인간이 향유할 모든 권리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것이 정치의 근본으로, 국책으로 되고있다.

당과 국가가 근로자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는 나라는 오직 조선밖에 없다.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 참다운 문명의 향유자로 되고있는 조선이야말로 인류가 꿈꾸던 리상향이다.

단원 알렉쎄이 조로브는 많은 사람들이 조선에 대해 잘 모르고있는것은 서방의 허위선전때문이다, 방문기간 조선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절감하였다, 누구든지 조선에 와보면 깜짝 놀랄것이다고 격정을 토로하였다.

단원 다닐 쨔즈꾼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조선은 력사의 시련을 이겨내며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였을뿐아니라 더욱 발전시키고있다.

지속되는 제국주의자들의 극악한 제재와 봉쇄책동속에서도 인민적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고있다는것은 조선식사회주의가 필승불패임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오늘 조선은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쳐가고있다.

세계는 조선의 경험을 따라배워야 한다.

본사기자

▶▶▶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

애국의 마음으로 국견을 키워가는 가정

지난 11월 19일과 20일 중앙동물원에서 《조선의 국견풍산개품평회—2019》가 진행되였다.

조선의 국견인 풍산개에 대한 등록조사와 순종평가사업을 진행하며 빠른 시일안에 순종마리수를 더욱 늘이려는 목적밑에 진행된 품평회에는 각 도에서 선발된 우수한 풍산개들이 출품된것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예비심사와 기본심사, 종합심사, 군중심사의 방법으로 진행된 품평회의 최종심사에서는 풍산개의 원산지와 멀리 떨어진 평양시에서 출품한 풍산개가 량강도에서 출품한 풍산개, 황해북도에서 출품한 풍산개와 함께 개별 1등으로 평가되였다.

풍산개자랑에 웃음꽃이 만발

이번 품평회에서 1등으로 평가된 풍산개를 출품한 평양시 대성구역 갑문동 80인민반에서 살고있는 리향림으로 말하면 올해 31살의 젊은 녀성이다.

한생을 풍산개를 기르며 살아오는 사람도 아닌 젊은 녀성이 어떻게 되여 풍산개를 표준형에 가까운 우수한 품종으로 잘 키워 전국적인 풍산개품평회에서 1등을 할수 있었는지 알고싶어 기자는 그의 가정을 찾았다.

평양시교외의 나지막한 산등성이에 아담하게 들어앉은 그의 집을 찾아 대문안으로 들어서자 집을 지키던 풍산개가 금시라도 물듯이 사납게 짖어댔다.

그러던 풍산개가 주인인 리향림녀성이 《유월이—》 하고 이름을 한번 부르자 순간에 온순해졌다.

리향림녀성은 풍산개가 낯선 손님을 보면 처음에는 으르렁거리지만 주인이 반기는 사람에게는 짖지도 않고 절대로 물지도 않는다며 기자를 방안으로 이끌었다.

마침 일요일이여서 그의 남편 홍영일도 집에 있었다.

화제는 자연히 그의 가정에서 기르는 풍산개에 대한 이야기로 번져졌다.

리향림녀성은 풍산개는 매우 령리하고 평소에는 성질이 온순하다고, 적수에 대해서는 맹수와 같이 사납지만 자기를 길러주는 주인을 잘 따른다고 하면서 슬기롭고 용맹한 우리 민족의 기상을 그대로 닮은 풍산개는 나라의 자랑인 동시에 자기 마을, 자기 가정의 자랑으로 되고있다고 말하였다.

리향림녀성의 풍산개자랑은 집짐승방목이야기로부터 시작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방목하던 염소들을 우리에 몰아넣을 때 간혹 다른 집의 염소가 섞여들어오려고 하면 자기 집 풍산개가 으르렁거리면서 제 집울타리안에 들여놓지 않는다는것이였다.

그러면서 가정에서 풍산개와 함께 다른 개들도 기르고있는데 다른 개들은 서로 먹이를 먼저 먹겠다고 싸우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나 풍산개는 얼마나 똑똑한지 엄지가 먹이를 먼저 먹도록 새끼들이 깍듯이 양보한다고 하면서 집도 잘 지키고 경우에도 밝은 자기 집 풍산개자랑을 줄줄 내리엮었다.

《풍산개는 자기 주인외에는 그 누가 무엇을 주거나 추긴다 해도 좀체로 믿지 않으며 또 자기 집의것이라면 무엇이나 살뜰히 보살피며 그 누구도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남편인 홍영일이 친구와 씨름을 할 때 있은 일화를 손세까지 써가며 들려주었다.

《내가 이겼을 때에는 곁에 점잖게 앉아 구경하던 우리 집 풍산개가 내가 져서 밑에 깔리자 상대방의 옷을 물어제끼면서 으르렁거려 그를 깜짝 놀라게 했답니다. 아무리 놀음삼아 하는 시합이라도 주인을 이기는 상대를 용납할수 없다는겁니다. 우리 〈유월〉이가 정말 똑똑하다고 칭찬하던 친구의 모습이 선합니다.》

자기들이 기르는 풍산개 《유월》에 대한 이들의 자랑은 끝이 있을상싶지 않았다.

민족의 재보를 귀중히 여기여

어떻게 되여 풍산개와 인연을 맺게 되였는가라는 물음에 홍영일은 《풍산개야 우리 민족의 재보가 아닙니까.》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중앙동물원에서 일하고있는 홍영일은 몇해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민족의 기상을 닮은 풍산개를 국견으로 제정하도록 하시여 인민들에게 또 하나의 국가상징물을 안겨주신 소식을 접하였다고 한다.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의 갈피마다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 풍산개,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에 떠받들려 조선의 국견으로 자랑떨치는 풍산개에 대한 사랑이 그의 가슴에 출렁이였다.

그후 홍영일의 발길은 때없이 중앙동물원의 풍산개우리로 향하군 하였다.

흰눈처럼 하얀 몸색갈이며 슬기로움에 반짝이는 검은 눈, 날카로운 창끝인양 곧추세운 귀를 비롯한 풍산개의 정겨운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며 그는 이런 생각을 하였다.

(우리 가정에서도 풍산개를 키울수 없을가.)

이렇게 되여 낳은지 얼마 안되는 풍산개새끼를 품에 꼭 껴안고 집에 온 홍영일은 안해와 함께 풍산개를 키우기 시작했다.

《그때가 2016년 6월이였는데 6월에 가져왔다고 해서 풍산개의 이름을 〈유월〉이라고 지었답니다. 처음에는 풍산개를 길러본 경험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다보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럴때마다 중앙동물원의 풍산개사양공들을 찾아가 경험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풍산개는 우리 수령님들께서 언제나 깊이 관심하시던 내 나라의 재부이라고, 이것을 항상 잊지 말라며 힘을 주군 하였습니다.》

이들은 풍산개에게 영양가 높은 먹이를 보장하기 위해 남모르는 길을 걷기도 하고 풍산개병치료에 필요한 약초밭을 조성하여 치료에 리용하기도 했다. 앓는 풍산개를 위해 곁에서 밤을 꼬박 새우면서 가정에서 쓰려던 꿀과 사탕가루, 남새, 물고기 등을 가져다 먹이며 지성을 다한 이야기는 감동을 자아냈다.

리향림녀성은 《저의 남편은 풍산개를 제살붙이처럼 귀중히 여겨야 한다고 늘 외우군 한답니다.》라고 말하였다.

쌍짓기대상선택과 쌍붙이기 그리고 젖뗀 강아지시기의 사양관리 등 풍산개의 순종보존과 사양관리하는 나날에 있었던 가지가지의 사연을 들으며 민족의 재보를 빛내이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바쳐온 이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느낄수 있었다.

하기에 조선의 국견을 사랑하고 애지중지 키워가고있는 이들부부를 사람들 누구나 존경하고있다.

마을사람들은 이들부부를 가리켜 꼭 풍산개를 위해 태여난 사람들같다고, 풍산개의 사양관리와 관련하여 모르는것이 없는 국견《박사》라고 정답게 부르고있다.

이들이 풍산개를 키우기 시작할 때만 해도 오늘과 같이 전국적인 풍산개품평회에서 1등을 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애국의 길을 가는 사람은 묵묵히 보이지 않는 일을 하여도 사람들의 찬양을 받는 장한 일을 할수 있다는것을 이들부부는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이들의 말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속에서 국견 풍산개를 키우려는 열의가 높아지고있다고 한다.

이들이 살고있는 대성구역 갑문동은 물론이고 주변의 청호동, 고산동, 안학동 등지에서도 풍산개를 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있다는것이였다.

《〈유월〉이가 품평회에서 1등을 한 덕에 우리 집도 소문이 났습니다. 〈유월〉의 새끼들을 가져다가 여러 세대에서 기르고있습니다. 아마 그 집들에서도 다음번 품평회에 참가할 준비를 하고있을겁니다.》

이렇듯 풍산개는 그의 가정만이 아닌 많은 가정들의 자랑으로, 기쁨으로 되고있었다.

이들의 가정에 꽃펴나는 풍산개자랑, 그것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중의 하나가 자기 고장, 자기 가정에 있다는 남다른 자부심의 표현이였고 그것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며 빛내여갈 애국의 마음이 꽃피운 자랑이였다.

이들이 들려준 풍산개에 대한 자랑이 남긴 여운은 컸다.

이들과 함께 풍산개에 대한 자랑으로 즐겁게 이야기꽃을 피운 기자는 꼬리를 살살 저으며 곱게 노는 《유월》을 뒤에 남기고 그의 집을 나섰다.

본사기자 홍범식

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재보들

최근 고려 2대왕 혜종의 무덤이 새로 발굴된것을 비롯하여 지난 5년간 공화국에서 수많은 력사유적유물들이 발굴복원되고 3개의 대상이 세계비물질문화유산으로, 90여개 대상이 국가 및 지방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였으며 10여개 대상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와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의 연구집단은 평안남도 순천시 동암동에서 구석기시대 전기의 유적을 발굴하여 조선이 인류문화발상지의 하나이라는것을 다시금 과학적으로 확증하였다.

고려왕궁터인 개성의 만월대에서 슬기롭고 문명한 우리 민족의 자랑인 금속활자 4점이, 라선시 선봉지구 웅상동에서 원시시대의 바위그늘유적과 고대시기의 고인돌무덤 2기, 살림집터 1개, 1 000여점의 유물이, 황해북도 봉산군 천덕리에서 규모가 큰 고구려무덤떼가 발굴되여 인류문화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밖에도 개성시 선적리의 고려 15대왕릉, 강원도 판교군 사동리의 광복사터와 평양시 삼석구역의 장수원동 벽화무덤을 비롯하여 40개 대상이 국보유적과 보존유적으로 등록되였다.

평안북도 구성시의 만년사, 황해남도 안악군의 월정사, 함경남도 금야군의 안불사 등이 훌륭히 복원되고 강원도 고산군 석왕사의 8개 사찰들이 해당 시대의 특성에 맞게 복구되였으며 함경북도 온성군의 3층으로 된 수항루가 옛 모습그대로 보수된것을 비롯하여 민족문화유산들이 더욱 빛나게 되였다.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 원칙, 과학성의 원칙에서 물질유산, 비물질유산, 자연유산들을 발굴수집하고 심의등록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였다.

2014년에 민요 《아리랑》이, 2015년에는 김치담그기 풍습이, 2018년에는 씨름이 세계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였다.

이밖에도 사회적관습과 로동생활, 전통의술과 전통음식, 생활풍습을 보여주는 조선식지붕양식, 비단생산기술, 조선장기, 썰매타기, 꿀벌치기를 비롯한 80여개 대상이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평양의 4대음식의 하나인 평양온반의 가공법과 전통적인 서도민요의 음악적특성이 뚜렷한 《정방산성가》, 개성지방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돌칸한증, 삼댐모래찜 등이 지방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였다.

조선의 국조인 참매와 광포종오리, 룡악산샘물, 금강샘물, 금야황철나무, 안학동 반재배콩 등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것을 비롯하여 자연유산에 대한 보호관리사업에서도 성과가 이룩되였다.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보여주는 이러한 문화유산들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깊이 심어주는 귀중한 재보로 된다.

본사기자

날마다 흥성이는 약수목욕탕

최근 강서약수공장에 꾸려진 약수목욕탕이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 련일 흥성이고있다.

세계적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천연음료로 인정받고있는 강서약수는 치료폭이 넓고 그 효과가 큰것으로 하여 사람들속에서 인기가 대단히 높다.

현대적미감이 나게 꾸려진 약수목욕탕의 1층에는 일반목욕실, 온수욕실, 치료홀이 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약수치료를 받기 전에 먼저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고 측정결과에 따라 치료를 받는다.

치료에 리용되는 약수의 온도와 치료시간은 서로 다르다.

습식한증칸과 건식한증칸이 갖추어져있는 일반목욕실을 리용하는 사람들은 온수욕실에서 제정된 온도와 시간에 따르는 약수치료를 받는다.

또한 치료홀에서는 30여명의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수 있는데 치료목적에 따라 해당한 약수탕크를 리용한다.

약수목욕탕에서의 약수치료는 위병, 비만증 등을 치료 및 예방하는것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수 있다.

치료를 받으면서 약수를 마시는 경우 일부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약수치료를 받은 후에 사람들은 혈압과 맥박을 재고 치료효과에 대하여 즉시 알수 있으며 지적해주는데 따라 치료주기를 정하고 다음 치료계획을 세울수 있다.

약수목욕탕의 2층에는 운동실과 침실 등이 꾸려져있다.

운동실에서 사람들은 여러가지 운동기재를 리용하면서 필요한 운동을 할수 있으며 며칠동안 약수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휴식조건이 원만하게 갖추어진 침실을 리용할수 있다.

이곳에 꾸려진 침실에서 며칠동안 지내면서 약수치료를 받은 50대의 한 남성은 이렇게 말하였다.

《약수의 온도는 물론 몸을 잠그고있는 시간까지도 사람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원래 관절염이 심해서 다리를 제대로 구부리지도 못했는데 여기서 며칠동안 치료를 받은 후부터 계단을 마음대로 오르내리게 되였습니다. 그리고 약수치료를 받으면서 위와 간의 기능이 높아지고 신경통에 의한 고통도 줄어들었습니다.》

강서약수공장의 약수목욕탕이 문을 연지는 얼마되지 않지만 여러가지 질병치료에 약수치료가 특별히 효과가 크다는 소문을 듣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다.

본사기자 김영춘

수십종의 《은하수》화장품 개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질좋은 화장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줄 일념안고 평양화장품공장에서 올해에 수십종의 《은하수》화장품을 개발생산하였다.

공장에서는 국내와 세계의 화장품발전추세에 대한 분석을 심화시키고 사람들의 다양한 기호와 수요에 맞게 여러가지 기능과 효과를 나타내는 새 제품들을 내놓기 위한 탐구전, 창조전을 힘있게 벌려 피부보호 및 기능성화장품, 분장용화장품, 머리칼화장품, 세척용화장품들을 생산하였다.

최근에 장미와 록두를 기본원료로 한 크림과 물크림, 살결물 등 6종의 《은하수》화장품이 아시아와 유럽에서 영향력있는 지역경제기구인 유라시아경제동맹의 품질인증을 또다시 받았다.

공장에서는 국내에 흔한 천연물질을 기초원료로 하는 화장품생산에서도 성과를 이룩하였다.

고려약재추출물을 리용하여 피부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증된 새로운 형태의 부위별 미안막들과 치료용크림들을 개발하였으며 원료, 자재, 첨가제의 국산화비중을 최대한 높여 여러가지 용도와 종류의 세척용화장품, 미백화장품들도 내놓았다.

특히 염색크림은 지난 시기에 비해 염색시간이 짧고 효과성이 높은것으로 하여 사용자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녀성들의 인기를 끄는 여러가지 용도의 향수들과 애기크림, 애기물비누 등의 새 제품들에도 세계적으로 이름난 제품들과 당당히 경쟁할수 있는 명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두뇌전, 기술전을 힘있게 벌려온 이곳 연구집단의 피타는 노력이 깃들어있다.

평양화장품공장에서는 련관단위와의 긴밀한 협조밑에 재자원화에도 힘을 넣어 유휴자재들을 가지고 다양하고 맵시있는 화장품용기들을 계렬생산하고있다.

본사기자

의자에서의 건강체조

1. 허리를 긴장시키고 배를 들이민다.

상반신을 곧추 펴고 숨을 깊이 들이쉰 다음 허리근육을 긴장시키고 배를 들이민 자세를 2~3초 유지한다.

2. 잔등근육을 긴장시킨다.

어깨를 뒤로 젖혀 잔등근육을 수축 및 긴장시키고 4~6초 유지한다.

3. 팔걸이에 의지하여 몸을 들어올린다.

두손을 의자의 팔걸이에 의지하여 힘있게 몸을 들어올려 3~4초 유지한다.

4. 배를 들이밀고 엉뎅이를 든다.

먼저 배를 들이밀고 두손으로 의자의 팔걸이를 잡고 대둔근을 긴장시킨 다음 의자에 의거하여 엉뎅이를 의자에서 약간 든다. 이 상태를 4~6초 유지한다.

5. 다리를 구부려 손으로 꼭 끌어안는다.

두다리를 구부려 올리고 두손은 종아리를 꼭 끌어안고 무릎을 가슴부위에 힘껏 붙인다.

6. 허리를 돌려 움직인다.

두손은 허리춤을 쥐고 발은 바닥에 대고 폭을 크게 하면서 허리를 좌우로 돌린다.

본사기자

12월의 음식

—구수한 토장국

토장국은 구수한 맛과 냄새로 하여 독특한 향토적맛을 느끼게 하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음식이다.

토장국은 고기와 남새를 두고 익힌 다음 된장을 넣어 끓이는데 소뼈를 고은 국물에 된장, 배추, 콩나물, 무우 등을 넣고 끓이거나 된장을 두고 소금에 약간 절구어 말리운 청어나 멸치를 넣어 끓인 국, 된장에 순 남새만 넣고 끓인 국이 널리 알려져있다.

—추운 날의 더운 음식

우리 민족은 추운 겨울철에 랭면과 같이 찬 음식도 좋아하였지만 온몸을 훈훈하게 덥혀주는 뜨끈뜨끈한 음식도 많이 만들어먹었다.

그러한 더운 음식으로는 전골, 설렁탕, 온반이 이채를 띠고있다.

전골은 고기, 물고기, 남새를 비롯한 갖가지 음식감을 남비에 넣고 끓이면서 먹는 음식이다.

설렁탕은 여러가지 고기의 내장을 국물이 뽀얗게 될 때까지 푹 끓여서 먹는다.

밥우에 꾸미를 놓고 따끈한 장국물을 부어서 먹는 음식이 온반이다.

본사기자

여러모로 좋은 롱구

롱구는 사람들의 체력을 단련시키고 키를 크게 하며 지적능력을 발달시키는 체육종목이다.

두 팀이 일정한 높이로 친 그물을 사이에 두고 공을 쳐넘기는 방법으로 승부를 가르는 배구경기와는 달리 롱구경기에서는 규정된 높이에 매달아놓은 상대편 륜에 공을 던져넣은 점수로 승부를 겨루게 된다.

그러므로 롱구선수들의 운동량은 배구선수들보다 더 크다.

롱구는 공보내기와 잡기, 몰기, 넣기, 가로채기 등의 동작들이 빠른 속도로 각이하게 진행되는 체육종목이다.

따라서 롱구를 많이 하면 민첩성이 발달된다. 롱구는 달리면서 공보내기와 잡기, 급출발과 급정지, 방향바꾸기 등의 동작들이 부단히 반복되면서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 속도힘이 발달되게 된다.

롱구를 하는 과정에 조약하여 넣기, 판공잡기, 공쳐내기 등과 같은 동작을 많이 하게 된다.

좁은 구역에서 빠른 이동과 정지, 공보내기와 잡기 등 롱구기술동작들을 수행하는 과정에 균형감각뿐만이 아니라 운동지각을 발달시킨다.

또한 롱구전술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 팀과 상대팀에 대한 인식, 앞으로 이동할 방향과 위치, 전술수법에 대한 판단, 추리, 예측과 결심 등과 같은 지능을 매우 높은 수준에서 발달시킨다.

롱구는 제한구역에서의 3초규정을 비롯한 정확한 시간지각과 결단성, 완강성 등을 끊임없이 높여주고 여러가지 심리적기능들과의 호상련관속에서 지적능력을 발달시킨다.

본사기자

지명과 그 유래

양덕군

양덕군은 평안남도 남동부의 내륙지대에 위치하고있다.

양덕군은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생겨났다.

14세기에 이곳에 두개의 진을 설치하였는데 양암진, 수덕진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고장이름도 진이름을 따라 양암, 수덕이라 하였다.

양암은 한자로 《별양》, 《바위 암》자로서 양지바르고 바위가 많은 곳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수덕은 수림이 무성한 덕지대로 되여있는 곳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조선봉건왕조말기에 현이 군으로 개편될 때 양덕군으로 되였다.

온정리에는 석탕온천이 있고 읍에는 양덕온천(대탕지, 소탕지)이 있다.

본사기자

깊고얕은것은 건너보아야 안다

성구속담의 유래

직접 겪어보지 못하면 진실을 인식할수 없음을 비겨 이르는 말.

소경이 어떤 사람에게 물었다.

《대관절 해라는게 어떻게 생겼소?》

《해말인가? 구리쟁반처럼 생겼다네.》

그 말에 소경은 옆에 놓인 쟁반을 두드려보며 그 소리를 익혀두었다.

하루는 사찰에서 《뗑뗑》 하는 종소리가 들려왔다. 이 소리를 들은 소경은 환성을 질렀다.

《해다. 해가 나타났다.》

《해》를 찾은 기쁨에 이번에는 해빛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다.

그래서 지나가는 한사람을 붙들고 또 물었다.

《해빛이라는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소?》

그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초불같다네.》라고 말해주었다.

《오, 그렇구만!》

소경은 집안에 있는 초대를 만져보면서 열심히 그 모양을 익혔다.

어느날 소경은 나들이를 갔다가 탁자우의 피리를 집어들게 되였다.

그러자 너무 기뻐 《해빛이 여기 있다.》라고 소리쳤다.

본사기자

의학자 허임

의학자 허임(1570—1647)은 꾸준한 노력과 고심어린 연구로써 침구에 정통한 명의로 되였다.

당시 그는 《귀로 듣고 마음으로 파악하고 손에 익혀 침구에 능한 의사》로 높이 평가되여 궁중의 사로까지 되였다.

그는 침으로 허한것은 보하고 실한것은 사한다는 독특한 《침구보사법》을 고안해내여 침구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으며 침구학을 한계단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그는 또한 종전 침혈들의 위치를 검토수정하기도 하고 새로운 침혈을 찾아내는 등 림상치료과정에 쌓은 귀중한 경험에 기초하여 《침구경험방》(1권)을 서술하였다.

그의 일생동안의 침구경험을 종합체계화한 이 책은 지금까지 전해오는 침구전문책들중에서도 가장 가치있는 책으로서 당시 내외적으로 널리 보급되였다.

본사기자

사화

사륙신 유응부 (2)

글 리성덕, 그림 채대성

언제나 활달하고 락천적인 성삼문이 유응부를 보고 한마디 하였다.

《유공! 이 자리에는 다 동반(문관)뿐이고 서반(무관)은 유공뿐인데 절재의 시조를 한번 읊어 썩은 선비를 나무래보시지 않으시겠소?》

그러자 좌중이 껄껄 웃었다.

유응부도 큰소리로 웃었다.

절재의 시조란 김종서가 북방을 개척할 때 지은 시조를 가리킨것이였다.

백두산에 기를 꽂고 두만강에 말 씻기니
썩은 저 선비야 우리 아니 사나이랴
어떻다 릉연각상에 뉘 얼골 그릴고

이런것이였다.

유응부는 늘 이 시조를 즐겨 읊으면서 무관의 기백을 자랑했고 고루한 선비들을 조소하여왔던것이다.

유응부는 성삼문을 보고 한마디 하였다.

《여기 모인 제공이 모두 큰일을 맡아나선 대장부들인데 무슨 사나이를 따로 론할게 있겠소?》

《옳은 말씀이요. 옛날에 어느 나라 왕이 릉연각이라는 루각을 짓고 공신들의 화상을 그려서 걸어놓았다는데 이제 상왕(단종)께서 복위하시면 우리의 화상도 그리게 하실 날이 꼭 있을것이요.》

김질이 턱에 달린 쥐꼬리만한 노란 수염을 까불거리며 이렇게 말을 받아 마치자 모여앉아있던 사람들이 금시에 모두 잠잠해졌다.

그의 말속에는 공신자리를 바라고 단종을 복위시키려 한다는 뜻이 질게 담겨져있었기때문이였다.

철저한 봉건적왕실정통사상과 충군사상의 소유자였던 유응부는 벌써 공신의 자리를 넘겨다보는 김질을 아니꼽게 생각하고 어이없는 웃음을 껄껄 웃었다. 그러더니 문득 추연한 낯빛으로 읊지 않겠노라던 시조를 읊기 시작하였다.

백두산에 기를 꽂고 두만강에 말 씻기니
썩은 저 선비야 우리 아니 사나이랴
어떻다 릉연각상에 뉘 얼골 그릴고

읊기를 마치자 유응부는 또다시 비분강개한 목소리로 껄껄 웃었다.

그 서늘한 무관의 웃음소리는 수백수천마디의 꾸중보다 더 무섭게 김질의 검은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불태우고있었다.

김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었다.

(과연 유응부다운 솜씨로구나!)

집현전 학사들은 모두가 속으로 유응부의 송백같은 기개를 찬양하고있었다.

그러나 분위기는 매우 어색하게 되고말았다.

집주인인 성삼문이 급히 이야기를 딴데로 돌리였다.

《지금 항간에서 우리 집현전 학사들에 대해 떠도는 말이 있으니 좀 들어보시겠소?》

《아니, 떠도는 말이라니? 무슨 흉이라도 보고있다는 말씀이요?》

박팽년이 풍채좋은 수염을 쳐들고 성삼문을 바라보았다.

《흉이라면 흉이고 칭찬이라면 칭찬인데 한번 들어보시오.

경학과 인격으로는 박팽년이 으뜸이요, 책론으로는 하위지가 으뜸이요, 시로는 리개가 으뜸이요, 사학으로는 류성원이 으뜸이요, 어학과 교제와 모략으로는 신숙주가 으뜸이라고 말들 한답니다.》

《허허허, 그럴듯하구려. 그런데 우승지 당신에 대한 말은 없으시오?》

누군가 이렇게 묻자 성삼문을 대신하여 리개가 대답하였다.

《우승지 성삼문이야 주옥같은 문장과 풍류해학으로 으뜸이지요.》

《다 그럴듯하구려. 헌데 여기 앉으신 유공(유응부)에 대한 소문은 없으시오?》

《유공이야 두말할것없이 청렴결백과 남아의 기백으로 으뜸이지요.》

둘러앉은 사람들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과연 그럴듯한 말이라고 하였다.

이날 이들은 적당한 기회가 오면 수양대군과 그 지지자들인 한명회, 권람 등 간신들을 몰아내고 상왕을 다시 맞아들일 의논을 마치고 헤여졌다.

유응부가 집에 돌아오니 동생 응신이 와있었다.

오래간만에 형의 집을 찾은 시동생을 위하여 부인은 부엌에서 있는 성의를 다하여 식찬을 마련하고있었다.

이윽고 밥상이 들어오는데 어설프기가 그지없었다. 잡곡밥에 무우김치, 고추장이 전부였다.

더 후한 상을 마련하지 못한것을 민망해하는 형수의 얼굴을 훔쳐본 응신의 가슴은 저려왔다.

대신의 대접을 받는 몸으로서 이것은 너무한 일이라고 생각되였다.

《어서 들거라. 변변치 않다만 그래도 내 집 밥이니 많이 들어라.》

유응부는 아무 눈치도 채지 못한듯 동생에게 밥을 권하고 저도 술을 들어 맛있게 먹는것이였다.

응신은 숟가락을 들다말고 어이없는 눈길을 들어 형을 바라보았다.

《형님, 이거야 너무하지 않습니까. 형님으로 말하면 재상에 이른 무관이 아닙니까. 그런데 식상에 고기 한점 없으니 웬 일입니까? 그리고 방문도 다 떨어져 멍석으로 가리우고 지내시지, 뒤주안에는 쌀 한톨 남아있지 않으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무인으로서 호사한 생활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실 까닭이야 있겠습니까?》

유응부는 말없이 숟가락만 놀리다가 껄껄 웃으며 상에서 물러앉았다.

《네 말에도 일리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나의 국록이 그이상의 생활을 허락치 않고 또 그럴 마음도 없으니 밥상에 고기 한점 없게 되는것이고 방문을 멍석으로 가리우고도 크게 꺼리지 않는것이다. 나는 깨끗이 살다가 나라에 몸을 바칠 결심이다. 나의 생활에 대해서는 더 말할것 없다.》

아래방에서 이 말을 듣고있던 유응부의 부인은 옷고름으로 눈물을 찍었다. 일생을 저러한 남편과 함께 지내오면서 언제한번 허리를 펴고 살아보지 못한 녀인이였다.

응신은 형과 마주앉아있기가 거북하여 상을 물려가지고 형수가 있는 아래방으로 내려갔다.

《형수님, 형님이 저러하시여 형수님만 고생을 하시는걸 그저 보기가 참으로 죄송합니다.》

응신이 안타까와 한숨을 토하였다.

《이 살림이 고생스러운데도 있지만 그래도 나라에 바친 몸으로 집살림걱정을 하게 해서야 되겠나요? 나는 이걸 오히려 락으로 알고 살아요.》

형수의 말을 들은 응신은 더는 아무 말도 못하고말았다.

…

유모아

며느리의 고집

갓 시집을 온 며느리가 생선을 굽고있었다.

그 며느리는 고집이 세기로 유명하였다.

그래서인지 생선이 다 타는데도 모르는체 하고 가만히 있었다.

보다못해 시어머니가 말하였다.

《애야, 뒤집어서 구워야지, 한쪽만 계속 태울테냐?》

그러자 며느리는 이렇게 대꾸했다.

《가만히 계셔요. 제까짓놈이 뜨거우면 돌아눕겠지요 뭐.》

주소: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집위원회